



연구위원 칼럼

## 이름을 부른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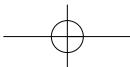


이제훈(목사,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교목)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두바이에 세계적인 호텔이 우뚝 서 있습니다. 두바이의 탑이라는 뜻을 가진 '버즈 두바이' 호텔입니다. 7성급 호텔로 전 세계인들이 한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꿈의 호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호텔이 세계에서 최고의 호텔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세계 최고의 호텔 순위를 살피면 '버즈 두바이' 호텔은 열 손가락 안에 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고의 호텔이 어디에 있을까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놀랍게도 세계 최고의 호텔이 방콕에 있는 오리엔탈 호텔이라는 것에 놀립니다. 오리엔탈 호텔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버즈 두바이'에 어림없는 평범해 보이는 호텔입니다. 역사상으로 보면 100년이 넘은 호텔이기에 '버즈 두바이'를 암도합니다. 그런데 세계에는 방콕 오리엔탈 호텔 보다 오래된 호텔이 즐비합니다. 단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계 최고의 호텔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객관적 실체로 한 예를 들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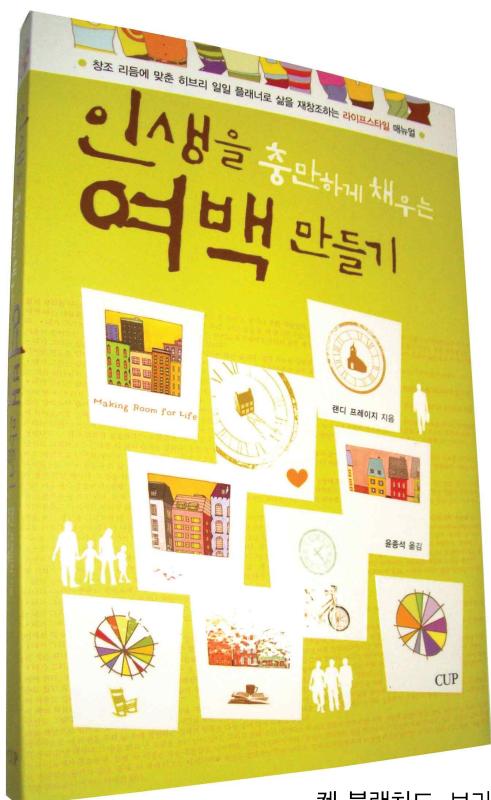
방콕 오리엔탈 호텔은 객실 수가 395개에 종업원 수가 1,000명이 넘습니다. 언뜻 보아도 종업원이 과도하게 많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투숙객 1인당 1명의 종업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완벽한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하면 커피에 설탕을 어느 정도 넣는가를 메모했다가 몇 년 뒤에 다시 그 호텔에 투숙을 하면 정확한 양의 설탕이 들어간 커피를 서비스 한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000명의 종업원 가운데 직원들은 모두가 395개의 투숙객 전원의 이름을 알고 '손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Mr 혹은 Mrs 아무개라고 정확하게 이름으로 부른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도에 지나가는 호텔 직원이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면서 인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하자면 투숙객 한 사람 한 사람을 많은 투숙객 가운데 하나로 보지 않고 단 한 사람이 머문 것처럼 모든 직원들이 애정을 갖고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맡은 투숙객에게 종업원들이 그림자 서비스를 할 뿐만 아니라 직원 모두가 모든 투숙객을 그가 맡은 손님처럼 대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대학을 이런 기준으로 등급을 매진다면 세계 몇 위가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종합대학에 인적이 있어 도서관에 함께 갔었습니다. 야간에 입구에서 출입관리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교수님이라고 부르면서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자신이 00과 학생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저를 안내한 교수님은 그 학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과 학생이 수백 명이라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다고 일러줍니다. 그 때 그 교수님이 학생의 이름을 부르면서 등을 두드려 주었다면 그 학생이 얼마나 좋아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강의실에서나 사무실에 만나는 학생들의 이름을 알고 이름으로 문안을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담긴 관심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살롬!



창조 리듬에 맞춘 히브리 일일 플래너로 삶을 재창조하는 라이프스타일 매뉴얼

# 인생을 충만하게 채우는 여백 만들기



어떻게 삶의 심장부에 다다를 것인가?

바람쥐 셋바퀴 도는 듯한 정신 없이 바쁜 삶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일까?

저녁 6시까지 모든 업무를 마칠 수 있다면?

날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면?

깊고 만족스런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다면?

교회와 일상생활을 자연스레 하나로 융합할 수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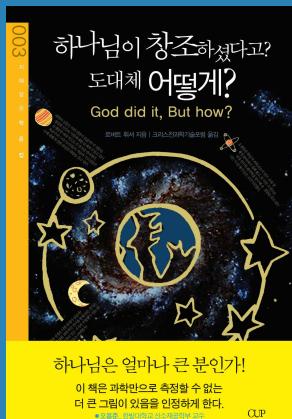
매주 몇 시간씩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이 책에 그 비결이 있다.

랜디 프레이지 지음 ● 윤종석 옮김

肯 블랜차드, 브라이언 매클래런, 조셉 마이어스, 조지 갤럽 주니어, 더그 패지트 강력 추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도대체 어떻게?

God did it, But how?

로버트 휘셔 지음 ● 크리스천과학기술포럼 옮김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발견할 능력을 주셨다!

성경적 삶과 문화를 창조하는 도서출판 CUP cupmanse@gmail.com | www.dew21.org